

		보 도 자 료			
전국청년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7 민주당사			
담당	김형준 보좌관	연락처	02-748-1813	E-mail	modominjooyouth@gmail.com
배포일시	2026년 8월 20일 (목)		보도일시	즉시	

전용기 의원님의 청년 최고위원 지명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김민석 당대표의 전용기 의원 청년최고위원 지명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이번 결정이 현행 당헌·당규상 지명직 최고위원 선출 구조의 한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론임을 이해합니다. 동시에 청년 최고위원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청년의 목소리가 당 지도부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 인선을 결단해주신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 전용기 의원은 누구보다 민주당 청년정치의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전국대학생위원장을 거쳐 전국청년위원장을 맡았고, 청년의 목소리가 당의 중심으로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벽을 넘어야 하는지 직접 경험해온 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명이 더욱 반갑습니다.
- 전국청년위원회는 그동안 청년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쉽지 않은 싸움을 이어왔습니다. 선거 때만 청년을 찾는 정당이 아니라 청년의 목소리가 일상적으로 당의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 청년최고위원제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청년이 직접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광장을 만들어 더 많은 청년에게 정치의 문을 열기 위해 청년정치인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 하지만 지금의 노력만으로 충분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2030 청년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서 74%가 지금의 민주당이 청년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듣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당을 아끼고, 당 안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온 청년들이 내린 평가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당 밖에서 2030 청년들이 민주당에게 내리는 평가는 더욱 엄중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청년에게 다시 민주당을 바라봐 달라고 말하기 전에 민주당이 먼저 달라져야 합니다. 청년의 삶 가까이에서 듣고, 함께 결정하고, 책임지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 그 변화는 전국청년위원회만의 힘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청년의 목소리가 지도부의 논의와 당의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 안팎에서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전용기 최고위원께서 그 변화를 만드는 든든한 동료가 되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전국청년위원회 역시 청년이 다시 기대할 수 있는 민주당을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 전용기 의원의 청년 최고위원 지명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모경종